

## 도심권

### •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5.5% 상승,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2월 소비경기지수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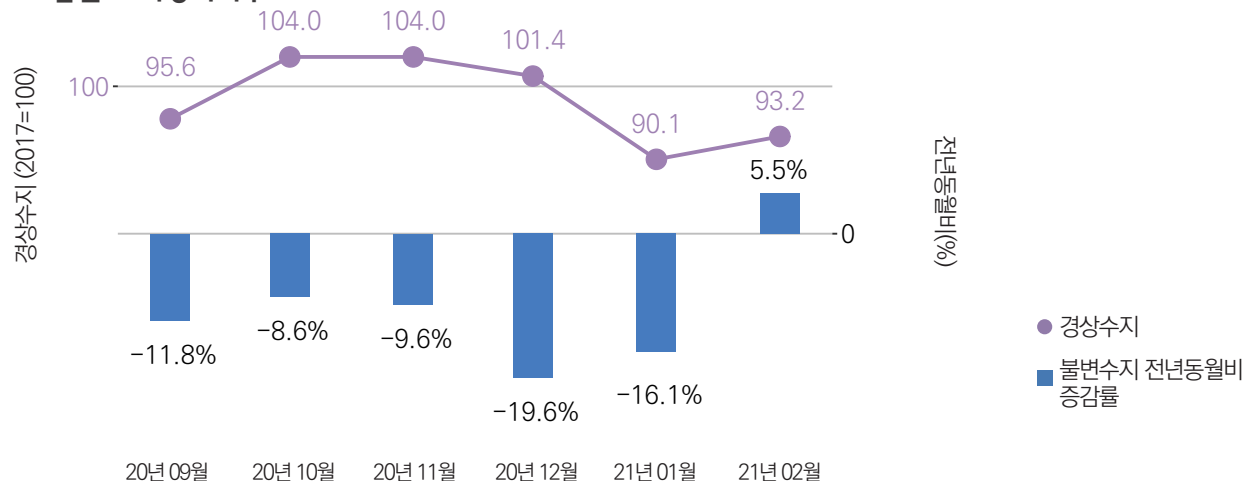
- 전년동월대비 +5.5% = 소매업의 기여도 +9.9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-4.4%p  
(각 업종별 기여도 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지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
관련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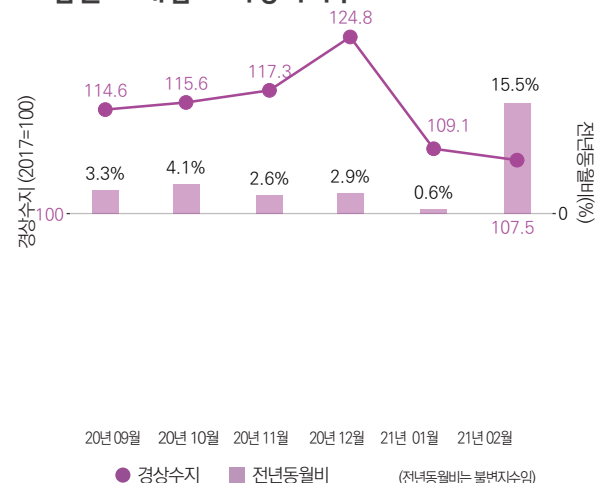
### 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15.5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12.2% 하락

- 도심권은 2020년 내내 부진했던 종합소매(15.9%), 의복·섬유·신발(11.4%), 문화·오락·여가(5.3%) 등의 업종을 비롯하여 무점포소매(64.8%), 음식료품(25.7%) 등의 2월 매출이 급증하면서 서울 소매업 소비경기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
  - 2월 도심권 소매업은 무점포소매, 음식료품, 종합소매, 의복·섬유·신발, 문화·오락·여가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
  - 반면 가전제품·정보통신, 기타가정용품 순으로 소비감소
- 도심권 숙박 매출이 1년여 만에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. 음식점과 주점·커피전문점 내림폭도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2월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내림폭이 -12.2%로 크게 완화. 전월대비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내림폭이 서울 권역 중 가장 큰 폭(1월 -42.6% ⇨ 2월 -12.2%)으로 둔화
  - 2월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 중 숙박은 소비증가
  - 반면 음식점, 주점·커피전문점 등의 순으로 소비감소

### 도심권 소비경기지수



### 도심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###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